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4남, 6여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월 수요집회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합니다. 김재홍 목사가 인도합니다.

다음 주 등산 동호회에서 삼각산(북한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동참하실 분은 등산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숙 집사 어머님께서 지난 1월 31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깊은 땅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과 뿌리를 목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 식 당 봉 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윤숙 김성은 유명남
- * 2/13, 20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 * 설 거 지 봉 사 : 전예원 윤수연 곽새롬 (다음 주 : 김종락 박영신 권혁신)
- * 새 교 우 : 박종서 (5남) 박선미(7여)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3:3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5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9(통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가족들과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주일을 맞아 다시 청과 신앙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휴를 지내며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입춘(立春)절기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겨울의 한 가운데에 봄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위에 겨울의 한 기 가득하지만 곧 다가올 봄을 믿고 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냉랭한 세상살이에 몸과 맘이 움츠러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9,10 인도자
 ♣ 교 독 문 13. 시편23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63(통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 성경봉독 I. 고후12:1-10 장성호 선생
 II. 마15:21-28 정원석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약함이 강함이다 김재흥 목사
 II. 소명의 확장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홍복선 정한구 왕영순 정복순 정재정 김수진B정연희 강지영 권채영
 김종락 박영신 허신열 김필순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강성식
 김근종 정옥영 김순복 전영웅 김정애 김정애B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배삼순 권호진 서수진 안정숙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월정헌금:

류건형 이주은 김경수 김현주 박석희 조항미 서정순 윤성종 김윤정
 이봉옥 황지현 주경진 이윤정 정재운 정미경 류건형 이주은 무명

감사헌금:

김종락 박영신 강순배 권혁신 홍순구 안홍숙 이유일 김미희 김순복
 이재문 유혜경 전재숙 최윤희 박애순권사가족 무명

녹색꿈헌금:

류준모 심호선

| | | | | |
|--|-------|-------|---|---|
| | 장 혜 속 | 백 혜 속 | | |
| | 노 순 옥 | 정 경 례 | | |
| | 임 정 자 | 최 경 미 | | |
| | 문 영 혜 | 이 명 희 | | |
| | 안 정 속 | 진 정 속 | | |
| | 박 홍 재 | 곽 권 희 | |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심 | 심 |
| | 이 형 속 | 권 미 속 | | |
| | 안 홍 속 | 오 현 정 | | |
| | 정 영 선 | 이 현 속 | |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 |
| | 박 혜 경 | 조 항 미 | | |
| | 김 재 흥 | 오 자 영 | | |
| | 김 기 석 | 이 건 식 | | |

얼음수도원 - 피정(避靜) 일기

고진하

지난밤 꿈에 / 남극에 있는 한 수도원을 보았다

얼음벽돌로 세워진 / 얼음수도원

흰곰의 가족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수도사들은,

얼음십자가상과 / 얼음성모상 앞에서 / 찬미가를 불렀다

하얀 콧김과 하얀 입김이 펄펄 날리며

수도사들의 / 긴 머리칼과 / 눈썹과 / 수영에

고드름을 맺히게 했다

저녁미사 시간,

수도사들이 바치는 / 비나리의 뜨거운 숨결이 /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얼음집을 다 녹였다

얼음수도원은 /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 수도사들도 사라졌다

잠을 깨고 난 뒤, 온종일

사라져버린 얼음수도원을 목상했다

무념무상의 설원(雪原)에 들 수 있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 이성운 손성현 | |
| 소속목사 : 김준우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원로장로 : 김성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장로 : 조병무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 | |
|-------------|---|------------|
| 찬양 |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 다함께 |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 인도자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좀더 큰 사람이 되십시오. 좀더 많은 사람을 품으며 사십시오. | |
| 다함께 : | 아멘. 자신의 작은 생각에 갇힌 채, 더 큰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일이더라도 소명이라 여겨지면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 축복 |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선교회 월례 주관예배 4남, 6여선교회 주관 | 에스라·느헤미야서 인도 : 김재흥 목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손성현 전도사 | 공동기도 | 권미정 집사 |
| | 김기석 목사 | 장영숙 전도사 | 하정석 집사 |

| 2월 | 영접위원 | 한상의 하현철 박범희 고숙이 최성애 박미영 |
|----|------|-------------------------|
| | 헌금위원 |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너도 나도 거지, 또는 하느님

경주(慶州), 그 이름을 부르면 이내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오는 땅이다. 경주에 처음 와서 불국사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다. 거기서 창을 열면 천변에 까마귀가 늘 즐비했다. 추수가 이미 한참 전에 끝난 공터에 물려 있던 까마귀 떼가 어느새 토함산 자락에서 흘러내려오는 천변에 내려앉았다가, 이윽고 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전신주와 전깃줄 위에 말 그대로 까맣게 내려앉아서, 마치 오선지 위의 음표처럼 보인다. 색깔로만 보자면, 까마귀의 검정은 모든 색을 제 몸에 응축시킨 결과이다. 세상의 모든 빛에너지가 한데 모이면 하얗게 빛나는 법인데, 그 모든 빛이 사물에 새겨지면 우리 눈에 검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정이란 빛의 육화(肉化)일지도 모르겠다.

어둡고 캄캄함이란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자아낸다.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무주 산골에 살 때였다. 마을길에서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면 짐까지 가는 동안 보안등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 귀농하였을 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서 늘 그 산길을 걸어 다니곤 했다. 내 경우에 간혹 서울에 다니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올라치면, 그믐밤에는 사방이 칠흑 같아서 도무지 어디가 길이 분간되지 않았다.

산길 앞에 두고 한참을 서있었다. 구름이 끼어 별조차 뜨지 않은 밤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기다리면, 점점 눈이 밝아져 길이 허영계 제 살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 평균대 위로 걸듯이 조심스럽게 한발자국씩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사방이 어두울 때 내면의 빛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서 내 앞길을 밝히는 빛이 솟아나는 것이다. 내 몸이 나를 사랑하므로.

그 한밤 내 캄캄했던 어둠이 걷히면, 그 어둠이 있던 자리에 온갖 색깔이 돌아난다. 풀잎들은 초록빛으로 다시 갈아입고, 하늘은 푸르게 다시 창공을 채운다. 노랑고 하얀 들꽃들이 다시 하루의 생애를 살기 시작한다. 어둠은 어둠 속에 이미 수많은 빛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 어둠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자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을 하루같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에 찬 현실이라기보다 의미 있는 현실을 창조하려는 조짐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만사가 뜻 없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닐까.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프이더라도, 그 아픔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려는 하늘의 의도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도 정성스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예전에 봄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십여 년 전에 돌아가신 장일순 선생에 관한 책을 만들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였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학순 주교만큼이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장일순 선생은 ‘요한’이란 세례명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신 분이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사상은 서학(西學, 천주교)과 동학(東學)의 통합이었다.

그 전화를 받고, 글씨와 그림을 통하여 장일순 선생의 행적을 더듬어 만들어진 <좁쌀 한 알>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보았다. ... 책에서 보면, 그분이 언젠가 제재소를 경영하던 최아무개라는 이에게 “너나 나나 거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장일순 선생이 뜨악해 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거지가 뭐가?” “거리에 깡통을 놓고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먹고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자네는 제재소라는 깡통을 놓고 앉아 있는 거지라네. 거지는 행인이 있어야 먹고 살고, 자네는 물건을 사가는 손님이 있어 먹고 사네. 서로 길모양만 다를 뿐 속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선생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님인가?” 얼른 답을 못하자, “거지는 행인이, 자네에게는 손님이, 고객이 하느님이라네. 그런 줄 알고 손님을 하느님처럼 잘 모시라고. 누가 자네에게 밥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지 잘 보라고.” 하였단다. 밥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 집에 밥 잡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자네의 하느님이여. 그런 줄 알고 진짜 하느님이 오신 것처럼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야 혀.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일절 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처럼 섬기면 하느님들이 알아서 다 먹여주신다 이 말이야.”

... 좋은 세상이란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으로 알고 섬기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기운을 입어 창조된 동족(同族)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

먹빛만으로 검은 새, 까마귀를 떠올리며 생각한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까마귀는 그의 검정만으로 새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 빛나는 깃털과 장식이 없는 새, 그 형상만으로 충분히 새임을 말하는 새. 어쩔 척척하게 보일 수도 있는 까마귀 떼를 바라보면서, 한 시절을 담백하고 마감하고 다른 생애를 꿈꾸기 시작하는 자의 장엄(莊嚴)한 색조를 느낀다.